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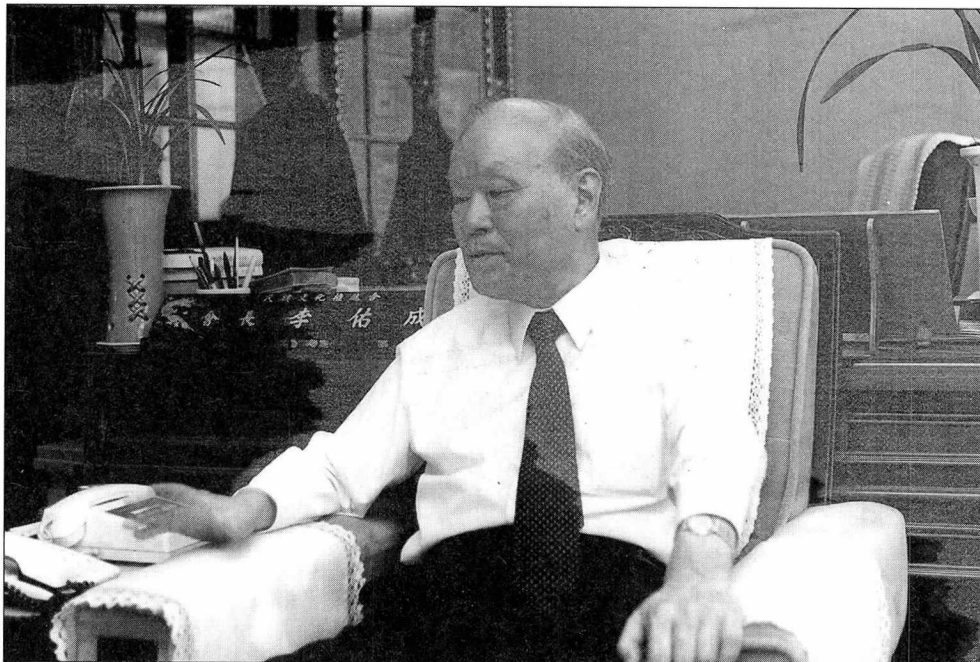
# ‘고전의 거울’ 통해 들여다본 학문적 사유

고희 맞아 세 권의 저서 펴낸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장

한국 한문학과 한국사 연구의 거목이자 실학사상가로서도 손꼽히는 박사(碧史) 이우성(李佑成·70, 성균관대 명예교수) 민족문화추진회장이 고희를 맞아 세권의 저서를 한꺼번에 출간했다.

이우성 회장이 일생의 ‘지향점’으로 삼은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이 스며 있는 그간의 글들을 모아 엮은 《실시학사산고(實是學舍散藁)》(창작과비평), 60년대부터 쓰기 시작한 우리 고전의 해제들을 자료사진과 함께 담은 《한국 고전의 발견》(한길사), 그리고 신라 말엽 역대 왕의 명령을 받아 당대 고승의 행적을 다룬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원문 주석과 함께 우리말로 풀이한 《신라사산비명(新羅四山碑銘)》이 그것이다. 이번 저술들은 한평생을 ‘민족의 고전’과 더불어 살아온 그의 생애에 걸친 각고정려의 소산을 동시에 출간한 것이라 더욱 의미가 깊다.

한평생을 ‘민족의 고전’과 더불어 살아온 박사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장이 고희를 맞아 그간에 써온 각고정려의 글들을 세권의 저서로 묶어 펴냈다. 그가 일생의 지향점으로 삼은 ‘실사구시’ 정신이 스며 있는 글들을 모은 《실시학사산고》, 우리 고전의 해제를 사진과 함께 엮은 《한국 고전의 발견》,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풀이한 《신라사산비명》이 그것이다.



이우성 민족문화추진회장.

## 읽는 이의 가슴에 와닿을 때 빛나는 고전

“그럭저럭 칠십고개에 올라갔는데 스스로 돌아보아 이뤄놓은 것도 별로 없고 회한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옛어른들이 쓰던 ‘백수궁려(白首窮廬)’ ‘무궁자도(撫躬自悼)’라는 말씀이 곧 지금의 나의 심경을 나타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고회라는 관용어 때문에 주위에서 마련한 송수(頌壽)의 자리에 나를 사랑해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념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책들을 출판합니다.”

《한국고전의 발견》은 역사와 언제나 함께 하며 감싸온 고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이다. 그것은 또 전통문화 계승을 운운하면서도 조형예술이나 민속놀이 같은 감각적 대상은 손쉽게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른 반면에 조상들의 심오한 철학적 사색과 격조높은 시문학의 정서가 담겨있는 고전들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 세태에 대한 안타까움의 발현이기도 하다. 세기말에 접어든 의식의 혼류 속에 “근대적 예지와 고전적 교양”이 한층 더 필요하다는 배려인 셈이다.

이 책에는 이규보·이승휴 등의 <고려명현집> 이행의 <기우집> 이항의 <퇴계전서> 류형원의 <반계잡고> 이익의 <성호전서> 안정복의 <동사강목> 박지원의 <연암집> 정약용의 <여유당전서> 등 총 42편의 고전해제를 담고 있다. 대동문화연구원장 시절 고전의 영인 출판을 위해 했던 해제작업을 비롯해 틈틈이 출간한 고전의 해설을 모은 것. 비록 체계를

갖춰 써나간 것이 아니긴 하지만 경사자집(經史子集) 가운데 지금껏 손이 미치지 못했던 집부(集部)에 많은 비중을 두어 그동안 공백으로 남았던 학계의 결함을 상당부분 메워줄 것으로 보인다.

“울곡문집이나 최치원문집 목은전집 같은 중요한 고전들이 빠져 있습니다. 좀더 체계적으로 고전해제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남지요. 옛책이라고 다 고전은 아닙니다. 역사를 통해 여과된 고전만이 고전이죠. 또 읽는 사람의 가슴에 와닿을 때 비로소 고전의 값은 빛나는 겁니다. 그것이 곧 고전의 발견이죠.”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그런 점에서 역사나름의 ‘고전의 발견’이다. 해제 또한 작가 생애와 문학의 소개에 그치지보다 그 고전의 시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사상사적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내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여느 해제와는 다르다. 특히 이 책에는 각 고전의 관련 유물과 현지 유적, 원본 등을 일일이 찾아 촬영한 사진작가 황현만씨의 컬러 사진자료가 고전에 대한 흥미를 더욱 끌어당긴다.

이번에 함께 출간한 《신라사산비명》 역시 우리나라 금석학 최고의 보전(寶典)인 최치원의 사산비명을 문화사적으로 조명한 ‘고전의 발견’이다. 사산비명은 <지리산 쌍계사 진감선사대공탑비명> <만수산 성주사낭해화

상 백월보광탑비명> <회양산 봉암사 지증대사적조탑비명>의 3편과 신라왕가의 능원과 사찰을 기록한 <조월산 대승복사비명>의 1편을 이룬다.

“일찍부터 사산비명의 가치를 중요시해왔습니다. 1963년경 우리나라 고대 토지소유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비명들에서 발견한 자료로 <신라시대의 왕토사상과 공전>이라는 논문도 발표했지요. 그 이후 사산비명은 항시 내 책상을 떠나지 않았고 토지소유에서 문화사적으로 차츰 관심의 시야가 넓어졌습니다.”

사산비명의 탐본 원문과 각 시대에 따른 주석, 평이한 문장의 역문을 담은 이 책은 일차 일획도 소홀히할 수 없는 금석학의 문헌자료로도 크게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

## 일관된 사유체계는 ‘실사구시’

《한국고전의 발견》과 《신라사산비명》이 ‘고전’을 정면으로 바라본 것이라면 《실시학사산고》는 ‘고전의 거울’을 통해 현실을 들여다본 학문적 사유가 담겨 있다. 1부 ‘논설’ 편은 여말선초와 임진왜란, 구한말의 격동기에 활동했던 실학자들의 생애와 학문 세계를 조명한 글들을, 2부 ‘서·기’ 편에는 역사가 그동안 쓴 여러 책들의 서문과 기(記)를 모았고, 3부 ‘비문’에는 여러 사적비와 묘비에 쓴 명문들을 실었다. 4부 ‘잡문’은

박사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낄 수 있는 짧막한 글을 보여준다.

이 책에서 일관된 박사의 사유체계는 제목이 암시하듯 ‘실사구시’이다. 90년 정년퇴임 후 강남구 대치동에 마련한 연구실 ‘실시학사(實是學舍)’ 역시 ‘실사구시’로 삶의 터전을 삼겠다는 박사의 지향점을 읽을 수 있는 부분이다.

“실사구시란 원래 17세기 이후 중국에서 금석학, 역사학 등의 고증을 말하는 협의의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요즘 등소평의 실사구시 노선은 ‘어떤 이념에 묶여 현실을 뒷전에 두기보다 현실에 직면 옳은 점을 구한다’는 광의로 해석됩니다. 우리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된 냉전시대 구도의 논리가 아직도 지배적인 명분이 돼 있습니다. 명분이 실리보다 앞서는 것은 문제이지요. 우리나라 역시 그런 점에서 광의의 ‘실사구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다산 정약용이나 혜강 최한기를 비롯한 박사는 높이 평가한다. 특히 혜강에 대한 ‘존경’은 특별해서 국내외에 흩어진 그의 편지들을 찾아모아 《명남루총서》와 전집을 꾸미기까지 이른다. 혜강은 세기말의 변환 속에 음울과 좌절을 겪던 동시대 다른 학자와 달리 동서양 문명의 융합을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선진적이었다.

사대부 실학에서 시민의 실학으로 한걸음



앞선 혜강의 사상은 곧 20세기말에 처한 오늘의 사상혼란의 방향을 이끌어 줄 만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교경전의 연역을 바탕으로 한 경학실학에서 '역산물리'에 바탕을 둔 '과학의 실학'으로 실학사상의 큰 전회를 마련했다는 것. 혜강의 독창적인 사상의 깊이는 벽산으로 하여금 남은 일생의 시간을 최후의 사상적 성격과 범위를 구명하는 데 전념해 《혜강 최한기》의 단행본을 필생의 연구저서로 남기겠다는 열정으로써 이어지게 한다.

#### 어린 시절엔 전통적 방식의 유학 공부도

유학전통이 깊은 경남 밀양에서 1925년 출생한 벽산의 조상은 '정진의숙'이라는 학교를 세워 유학을 자손대대로 물려줄 만큼 '전통'에 대한 자신감이 많았다. 벽산 역시 어린 시절 '서고정사'라는 마을 산장에서 따로 교사를 두고 전통적 방식의 유학을 가르침받았다. 9세 전에 사서를 재차 독파하고 10세에 《시경》 11세에 《서경》 12세에 《주역》을 통독하고 13세에 《예기》를 다 읽었다. 《고문진보》와 《십팔사략》 《당송팔가》도 골고루 읽었음은 물론이다.

일제의 탄압으로 전통적인 글공부를 끝내고 자유로이 책을 읽던 벽산은 19세기말 중국혁명운동에 앞장섰던 양계초의 《음빙실집》을 만나 충격을 받는다. 동서양에 걸친 정치학술 역사 등 백과사전 못지 않은 그의 저술은 '신지식'의 보고로 느낄 만한 것이었다. 그가 적용한 진화론과 아울러 《근세제일대철강역지학설》 등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관심을 받아시킨다.

이렇게 이뤄진 벽산의 학문태도는 한국의 역사로 귀결된 셈인데 《한국의 역사상》 《한

국중세사연구》 등의 응축된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의 모순에 대한 결연한 태도는 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그를 해직교수로 내몰기도 했다.

이제 우리 고전의 예지와 현대학문의 논리를 두루 섭렵한 노학자는 21세기를 앞둔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픈 말이 있다.

“19세기말 과학만능주의의 '세기말병'이 있었듯이 20세기의 끝무렵에 선 지금은 또다른 '세기말병'을 앓고 있습니다. 타산적인 실리주의와 현란한 시청각 문화 속에 경조부박(輕躁浮薄)한 사고와 행동은 사회위기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외침만 있는 세계화는 자칫 뿌리없는 문화의 자기상실만 남깁니다. 우선 민족 주체를 확립한 후 세계무대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앞세울 것은 격조높은 우리의 고전밖에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어떻게 그것을 정신적인 피와 살로 삼을 수 있게 할까를 먼저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대에서 학문을 잊지 못해 허전해 했는데 맡은자가 국사학을 전공해 다행한 마음이다. 밀양의 서고에 1만여권의 한서들을 보관하고 있지만 1년에 한두차례씩 제자들과 함께 둘러 마당 가득히 '폭서' (曝書)하는 연례 행사 때야 비로소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고전을 직접 만지곤 한다. 이즈음은 《민족문화추진회 창립 30년사》도 진행해야 하고, '실시학사'의 후학들과 함께 꾸준한 고전 번역작업은 물론, 개인적으로 《혜강 최한기 연구》와 《한국중세사연구》 마무리도 해야 하니 앞으로 우리 고전과 더불어 지낼 날은 까마득히 쌓여 있는 셈이다.

—김지원 기자

# 대주신제국사

賞 大朝鮮帝國史  
한국문화문화상 수상

한국인 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우리 역사 - 올바른 역사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대한의 젊은이여, 「대주신제국사」를 읽고 민족중흥의 역군이 되십시오.

중국대륙에서 일본열도에 이르기까지 웅대한 기상을 드높였던 우리 역사의 흐름을 알고, 민족의 뿌리를 찾아가는 찬란한 우리 민족사 - 이제, 「대주신제국사」를 통해 잘못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장엄한 민족의 기개를 바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보급판 : 29,400원 (전3권) ●날권판매 가능 (각권 9,800원)

국내 최초의 회화극본 산 호 글/그림

유머와 해학이 담긴  
대하 역사 만화소설

## 고우영 만화 십팔사략

십팔사략(十八史略)이란?  
중국의 장사 28종 중 사마천의 사기(史記)에서 탁구탁의 승사(宋史)까지 28가지의 장사를 원나라 때 중신지가 십팔사략으로 요약한 책

지금, 4천년 중국 역사의 주역들이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속에 다시 태어난다.

역사의 술한 인간상들에게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방식을 발견하십시오.

중국 역사중 가장 흥미있고 중요한 사료와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고우영의 유머와 해학으로 펼쳐지는 「만화 십팔사략」- 경영전략, 인생지략은 물론 삶의 철학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값/각권 5,000원



1 ~ 5권  
절찬리 판매중

동아출판사  
TEL: 861-4818/853-5608